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3년도표어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 생활지침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발행인: 이종윤 편집인: 이영기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저무는 한해

- 연말 연시 교회의 모임과 행사들 -

한해가 저물고 있다. 갖가지 계획을 세워 보며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한 1993년도도 이제 겨우 보름 남짓 남았다.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는 움직임들로 분주한 달이다. 교회에서도 성탄절 준비와 연말 결산 그리고 내년의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한 각종 준비 모임들로 바쁘다. 여기 저기 참석해야 할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아 마음부터 분요해지는 12월, 연두에 세운 계획과 결심이 얼마만큼 결실하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점검하는 기회도 가지며, 교회 일정표를 옆에 두고 각자의 연말일정을 계획함도 좋을 듯하다.

일꾼 임명식

- 오늘 가브리엘·할렐루야·임마누엘·베들레헬 찬양대원 임명 -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

우리 교회는 지난 주 I, II, III 예배시에 1994년도 서리집사와 교구일꾼을 임명하였다. 그날 임명을 받은 총 748명의 서리집사 중 지난 11월 당회의 면접과 교육을 마친 신입 서리집사는 남자 55명, 여자 89명이었으며 교구일꾼은 총 428명이었다.

계속될 각 부처의 일꾼 임명식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2일(주일) 가브리엘·할렐루야·임마누엘·베들레헬·찬양대원 임명식
- 19일(주일)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
- 22일(수) 호산나·시온 찬양대원 임명식

각 부서 총회

- 오늘은 남전도회 총회 -
새로운 기대 속에

지난 주 III예배 후에 6층예배실에서 교구총회를 가졌다. 교구총회에서는 교구및 다락방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고 지난 일년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1994년 교구행정에 관한 안전을 토의했다. 지난 수요일 여전도회 총회와 어제 있었던 실업인 선교회 총회를 비롯한 각 부서 총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2일(주일) 남전도회 총회
- 19 - 26일 각 부 교회학교 교사 총회, 찬양대 총회

목회자 동정

● 이종윤 목사 모스크바 선교 방문 ●

이종윤牧사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5일간 러시아를 방문, 94년도에 있을 김치세미나(KIMCHI Seminar)를 협의하기 위해 그곳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며 집회를 인도한다. 우리교회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KIMCHI)」이 주관하여 내년에 제5차를 맞게될 김치세미나는 그간 동구라와 7개국을 비롯, 중국계 목회자와 인도 스리랑카 등 힌두교권 목회자, 그리고 올해 아프리카 21개국 교회지도자들을 초청 훈련하였다. 박철훈 장로와 오정수 장로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선교여행의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13일(월) 모스크바 도착 → 14일(화) 러시아 선교신학교 특강, 러시아 선교교회 설교 → 15일(수) 러시아 국방대학원에서 강의, 국제대학 교수들과 간담회 → 16일(목)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와 면담, 개신교 지도자들과 선교협의 → 17일(금) KGB병원에서 전도집회

성탄절 행사

- 성탄전야예배·성탄절 새벽예배·성탄감사예배 -
기뻐하며 경배하자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신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기쁨의 축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24일(금)에는 오후 5시에 중앙대학교 대극장에서 모여 성탄전야 예배를 드리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성탄 캐롤, 사랑부에서 준비한 성극, 그리고 가족창, 중창, 연주 등으로 이어질 축제의 시간을 가진다.

성탄절 새벽 5시에는 성탄절 새벽예배를, 11시에는 성탄감사예배의 시간을 교회에서 드린다.

교회학교 졸업식

- 26일에 각 교회학교별로 -

우리교회에는 11개의 교회학교가 있어 영아로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온전한 천국시민의 삶을 살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 26일에는 학령에 의해 구분된 교회학교인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졸업식을 갖는다.

송구영신예배

- 1994년 1월 1일 0시에 -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 앞에서

1993년을 보내고 1994년의 맞는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한다. 사랑 가운데 돌보아 주신 지난 일년에 대한 감사와 회개, 새로 오는 날에 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며 간구한다.

새해 첫 주일인 2일 I, II, III부예배시에는 성찬식을 가지며 새해 교회 운영을 위한 공동의회를 연다.



교회 식당도 월동준비

부흥하는 교회에는 식당이 있다는 말이 있다. 여하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배부르게 해 주는 우리교회 식당도 김장을 하고 겨울 치비를 했다. 사전 광고도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잘 치를 수 있었다.

창세기강해



이 중 운

(목사·당회장)

가인의 길

(창세기 4장 1 - 5절)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던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이는 인간 최초로 잉태를 경험하였고 출산의 복을 얻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첫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 그들은 아마도 오늘날의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가인에 대한 기대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 정성을 쏟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구원주가 어찌면 가인이 아닐까 하는 기대 속에서 마음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1.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였으나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출산의 기쁨으로 인해 그들은 어찌면 하나님의 심판이 물려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가인은 인류의 구원주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한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박국서에 의하면 어부가 고기를 낚으면 그 고기는 물을 떠나게 되는데 물을 떠났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는 말이고,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에는 전도하여 생명을 구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과 더불어 심판 자리에 앉게 된다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득남을 했을 때는 말할 수 없이 좋

아했겠지만 불행하게도 그 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당장에 죽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서운 죄의 싹을 보게 되고 만 것입니다.

2. 아름다운 제물과 피제사

본문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을 해서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바친 제물로 미루어보아 가인은 농업을 했었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면 가인은 자기 땅의 소산물 중에 최고의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벨은 짐승을 죽여서 피가 흐르는 것을 가져왔으니 아름답기로 하면 가인의 것이 훨씬 아름답고 가치가 있었을터인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물리치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벨이 드린 피제사는 하나님 앞에 대리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수치를 주님께서 홀리신 보혈로 감추어주셔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나이다’하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아벨의 제사가 바로 이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4절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라는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열납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벨을 기뻐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

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헌금과 시간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피 제사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제물의 경중이나 정성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면 자기 공로로 드렸느냐 하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3장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제물이 악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 악했다는 말입니다. 죄인의 아들이어서 자범죄가 있기 전에 원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가증되고 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 누구의 종인가

가인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떠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키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나와있습니다. 제물을 잘 못 바쳤고 자신이 악한 고로 열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개해야 할 가인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인을 향해 이제라도 회생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오

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리느니라”(7절). 마침내 경고의 말씀이 가인에게 주어집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 스릴찌니라”(7절 하)고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 중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또한 선을 행치 않으면 죄에 점령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가인은 결국 하나님이 그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악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가 그를 다스리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벨을 들로 끌고 나가 남의 시선을 피해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가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은 의로운 자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죽었으나 아벨이 보여 준 믿음의 제사를 듣고, 보고, 행함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나의 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지난 11월 28일 서울장로교회 장로 여섯 분의 장립과 한 분의 취임식에 참석했었다. 으레히 이런 날이 되면 주최하는 측에서는 초청장을 보내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마치 결혼식을 연상케하는 식당으로 축하선물과 촌지를 가지고 모여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나를 어리둥절하게 한 것은 이것을 접수시킬 접수대도 없고 접수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당황한 나는 헐레벌떡 계단을 올라가 두리번 거려 보았으나 그 어느 곳에서도 접수대와 접수받는 이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목사님의 뜨거운 설교가 예배실을 메웠다. 내 귓전에 울리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접수대를 찾던 내 모습이 마냥 부끄럽기만 했다. “순교까지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들에게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들의 장립이나 취임은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나 안락함이나 물질적 그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라 더 많은 인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 장로 안수 및 취임식이 참석하고 나서 ✦

접수대는 어디 있습니까?

조 영 배 (신광장로교회 장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접수대를 찾던 내 모습이 마냥 부끄러워졌다. 준비해 간 촌지봉투를 도로 주머니에 넣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정성어린 기도로 축복을 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만난 우리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였으며, 각자의 마음에는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리라는 각오가 끓어 올랐다

설교를 들으며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장로가 되는 길에 그 의미가 조금이라도 흐려질까봐 초청장도, 교회에 바치는 선물도, 참석자들에게 나눌 답례품도 모두 생략했음을 양해하라는 말씀을 통해 비로소 접수대가 없었던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었다.

수북히 쌓인 선물의 양을 비교하고 돈 봉투를 주고 받는 세속적 관행을 여과없이 답습함으로 행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뜻을 왜곡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리하셨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준비해 간 촌지봉투를 도로 주머니

에 넣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정성어린 기도로 축복을 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며칠 후, 그 날 안수를 받으신 몇 분의 장로님과 함께 식사할 기회를 얻어 그 날 받은 내 인상을 말씀드렸다. 진정한 기쁨과 의미깊은 웃음 속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였으며, 각자의 마음에 주님만을 위해 더 더욱 헌신하리라는 각오가 끓어 올랐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해 보며, 서울교회 장로 안수식과 같이 회합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간구하는 관행들이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어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가 넘치던 날

- '93 추수감사절· 교회설립2주년· 장로안수및 취임식 -



▲ '93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 2주년을 맞아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감사를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동점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하며 간구한 성찬예식



▲ 오후 4시, 교회마당에서 벌어졌던 떡잔치. 날씨는 너무도 차가웠지만 떡을 때는 성도들의 마음은 따뜻하기만 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지극한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

✦ 장로 안수및 취임식 일곱분의 장로님께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문답'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만으로 피로 감추고 사신 교회를 위해 일할 것을 서약하였다.



▶ 순례자 컬럼

국가이익과 신앙양심

최 병 호

(목사·5.6교구, 초등부, 구제위원회 지도)

최근 국제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세계가 들쭉거리고 있다.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하면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며 상대국의 무역수지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 일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른바 21세기에 나타난 경제전쟁의 시발점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군사, 정치의 대국이라는 미국이 경제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때부터 나타난 증세로 보인다.

역사적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하는 문제는 곧 그 사람이 가진 사관(史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할 신앙인의 시각에서 지금의 현상을 논하기 위해 미국의 역사를 대분하자면, 청교도들의 신앙을 계승하였던 시대와 그것이 단절된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에 아직도 청교도 신앙이 지속되고 있는가를 물을 때, 단호히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한다해도, 학교교과에서 성경공부를 폐지시킨 이후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은 서서히 퇴락해왔다. 그들이 청교도 신앙을 잃어가면서 아울러 신개척지인 아메리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지탱해 주던 뿌리를 잃게 된 것이다. 정신을 잃은 나라와 그 역사는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그 결과로 국가는 점차 쇠퇴해가며, 사회·문화의 병폐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 미국도 이제는 이빠진 호랑이가 마지막 사력을 다해 포효함으로 상대방을 위협해 보려는 모양과도 같다.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다. 단지 국익만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이 안스럽고 미래가 염려된다.

미국의 신앙인들은 대체 어디로 다 갔는가? 모두 다 선교지로 갔는가,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느라 학문적 열정에 사로잡혀 연구 중에 있는 것인가? 자신의 나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작금 미국의 상황을 보며, 한 나라의 성패여부는 그 나라의 신앙인들에게 달려 있으며 그 근본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국가 이익과 신앙양심은 별개일 수 없다. 신앙인은 민족주의자도 아니요 국가지상주의도 아니다. 신앙인은 오직 천국의 시민일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으로 더불어 화평하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불사하는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정신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돕고, 양보하고,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해야 할 것이다.

신앙인들이여, 성탄절을 맞으며 신앙인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믿음으로 바로 서는 천국시민이 되자.



이종운 목사

신앙컬럼 - 순례자 출간

이종운 목사의 신앙컬럼을 모은 책 『순례자』가 필그림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이종운 목사가 1992년 1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동아일보 컬럼란에 연재한 글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신문 지면의 한정된 공간에 쓰기 위해 매우 압축한 글 속에 세상과 인간에 대한 신앙적 시각에서의 이해와 해석과 표현이 담겨있다. 『생명의 말씀사』에 총판을 의뢰하여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주일을 제외한 날에 교회 테이프보급실에서도 판매한다. (108면 / 2,500원)



▶ 성탄전야축제 준비위원회 /

성탄 전야 5시에 있을 축제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시상을 위한 상품을 기증할 분을 기다리고 있다. 기증할 분들은 사무국에 연락하면 된다. 참석할 우리 모두는 성도들끼리 교환할 2,000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며 다락방별로는 간식을 준비한다.

▶ 사랑부 / 성탄 전야축제가 열릴 중앙대학교 대극장 무대에 올리려고 성경연습이 한창이다. 추운 날씨에도 교사와 학생들은 땀을 흘리고 있다.

▶ 새가족부 / 지난 9일(목) 오후 7시부터 2층 집회실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했다. 9월 이후 우리교회에 등록한 새가족과 그들을 전도, 혹은 인도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새가족들의 뜨거운 간증이 매우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면서 새가족들은 이제 서울교회의 일원으로 책임있는 신자가 될 것을 다짐하였으며, 오래 믿은 성도들도 첫 사랑의 때를 되짚어 보게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 소망부 / 지난 주일(5일)에 제1회 성경퀴즈대회를 했다. 지도

교역자인 우심화 목사가 마태복음에서 출제한 문제들로 서로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하게 된 좋은 기회였다.

▶ 청년부 / 지난 주일부터 새 지도교역자로 이만열 전도사님이 오셨다. 유혹이 많은 청년의 때에 오직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이 지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자고 새롭게 다짐했다. 금요일(10일)에는 교사인 서성호 집사실에서 그간 공부해 온 『중보기도』 책거리 겸 친목회를 가졌다.

▶ 유년부 / 모범적인 두 자매(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4, 5학년)가 화제다. 멀리 인천에서부터 오지만 아침 8시 30분에 시작하는 찬양대 연습에 한 번도 늦거나 거른 적이 없다. 두 자매의 소박한 소원은 예쁜 교회당이 빨리 지어지는 것이어서 그들은 그간 푼푼히 모은 저금통을 털어 모두 건축헌금으로 바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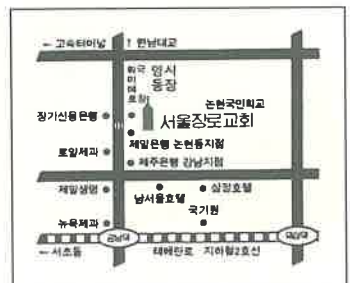
社 告

지난 호가 특집 8면이었던 관계로 오늘 『순례자』는 제98호와 제99호의 합본호입니다.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09:00
	II부 오전 11:00
	III부 오후 02:00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00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00
	II부 오후 07:00
금 요 기 도 회	오후 09:00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05:30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러시아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2.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3. 세계선교의 센터가 될 교회당신축을 허락하옵소서.
4. 새로 임명된 일꾼들이 충성스럽게 봉사하게 하옵소서.